

성매매 광고·상담·연결해 1만8000건 알선

‘사전 공모’ 안마시술소 관련자들 무더기 입건 위장법인 설립...비밀 사무실에서 24시간 운영



블로그 광고와 상담 등을 통해 성매매 1만8000여건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 기업형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안마시술소 관련자들도 입건돼 수사를 받

고 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생활질서과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61명을 검거해 수사 중이다. 총책 및 안마시술소 업주는 구속됐

다. 총책 A씨 등 13명은 성매매 광고 블로그 24개를 개설해 유명 불법 성매매 포털사이트에 올리는 방식으로 1만8000여건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을 사전에 공모한 서울 강남구 대형 안마시술소로 보내 성매매를 하게 하고, 안마시술소로부터 1인당 2~6만원을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위장법인을 설립해 지난 2020년 4월부터 강남구 주먹가 배달전문식당 내 비밀 사무실에서 웹디자이너 및 24시간 상담팀을 고용·운영해왔다. 역할을 분담해 체계적으로 범행에 나선 것이다.

이들은 또 노트북 22대·대포폰 64개·무전기 등 블로그 제작 및 영업에 필요한 장비 외에도 파쇄기·소각로 등 증거 인멸 장비를 갖추고 단속에 대비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 조직과 연계된 안마시

술소 관련자 47명에 대해서도 성매매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구속된 실업주 B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성매매 영업을 지속하면서 처벌을 피하기 위해 바지사장을 내세워 단속에 대비해 왔다고 한다.

안마시술소 건물주 C씨도 피임용품을 공급하는 등 성매매를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입건됐다.

경찰은 성매매 알선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 수익과 성매매 장소로 제공된 공시지가 113억원 상당의 건물에 대한 기소 전 몰수 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성매매 광고를 게재한 불법 포털사이트 및 다른 블로그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성매매 광고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해 온라인을 이용한 성매매 영업 확산을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환기자



해양교육원, 질병관리청 신규임용자 대상 외부 전문과정 운영

해양경찰교육원(원장 여인태)은 최근 질병관리청 신규경력관 30여 명을 대상으로 선박 안전교육 및 구조장비 활용법 등 전문 과정을 신설 운영했다고 밝혔다. 최이슬기자



무등산국립공원, 공원 내 5개 사찰과 업무협약 체결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남태환)는 최근 대한불교조계종 중심사, 원효사, 문빈정사, 약사사, 관음암과 탐방객, 사찰 관계자 안전 및 건전한 공원 문화 발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선욱기자



완도해경, 민관 합동 수난대비 기본훈련 실시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정수)는 최근 완도항 인근 해상에서 낚시어선과 양식장 관리선이 충돌한 상황을 가정한 민관 합동 수난대비 기본훈련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완도=기동취재본부



무안소방, 노인관련시설 현장 지도·점검 방문

무안소방서(서장 박의승)는 노인관련시설 화재 예방 등 안전관리를 위해 자혜양로원·요양원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무안=이기성기자



여수소방, 하반기 여수석유화학안전관리위원회 워크숍

여수소방서(서장 이달승)는 최근 여수국가산단 내 화재 및 폭발 등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대형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물시설 등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워크숍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여수=김현근기자



담양소방, 겨울철 산불예방 캠페인 펼쳐

담양소방서(서장 박상래)는 지난달 30일 겨울철 화재예방과 산불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담양=박종영기자

새벽시간 광주시내 금은방 턴 10대 구속영장 신청...공범 불구속 수사

‘장물 팔아주겠다’ 약속한 공범 추적 중

새벽시간대 금은방을 부수고 들어가 수 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1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4일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16)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군과 범행을 공모, 같은 혐의를 받는 B(15)·C(12)군은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일 오전 3시 30분께 광주 동구 충장로 귀금속거리 한 금은방 유리문을 부수고 들어가 금목걸이와 반지, 팔찌 등 3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조사 결과 사회 선후배 관계인 이

들은 미리 준비한 공구로 강화 유리창과 진열장을 차례로 부순 뒤 15초 만에 귀금속을 털어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을 주도한 A군은 C군과 함께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귀금속을 훔쳤으며, 그 사이 B군은 바깥에서 망을 봤다.

이들은 광주 모처에서 함께 범행을 공모한 D(19)씨를 만나 귀금속 일부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훔친 귀금속을 팔아주겠다’는 D씨의 교사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을 마친 뒤 타고 달아난 오토바이의 행방을 뒤쫓았으며, 범행 8시간 30분여 만인 지



난 2일 정오께 북구 한 모텔에서 A군 일당을 검거하고 귀금속 일부를 회수했다. 경찰은 훔친 귀금속 일부를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진 D씨의 행방을 추적 중이다. 촉법소년인 C군에 대해서는 가정법원 송치를 검토하고 있다. 최이슬기자



촛불대행진 운집한 시민들

시민들이 3일 서울 태평로 일대에서 촛불행동 주최로 열린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촛불대행진’에 참가해 피켓과 촛불을 들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광주 도시철도2호선 현장서 수도권 파손

300여가구 단수

2일 오후 1시 30분께 광주 북구 풍향동 서방사거리 도시철도 2호선 신축 현장에서 공사 도중 지하 매설 상수도관(지름 350mm) 일부가 파손됐다. 이 사고로 풍향동 일대 주택·상가

300여 가구와 각종 학교기관에 물 공급이 끊겼다. 또 일부 차량 통행에 지장 현상이 빚어졌다.

신고를 받은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누수 복구업체 등과 함께 긴급 보수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날 안으로 복구를 마무리해 용수 공급을 정상화한

다는 계획이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공사 과정에서 장비가 지하 매설 상수도관을 건드려 파손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오후 8~9시까엔 복구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보조금 주고 다시 뇌물로 골격 공무원

정수시설 납품 회사와 짜고 보조금을 타게 해준 뒤 뒷돈을 챙긴 전남 완도군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 등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은 완도군 공무원 A(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부터 마른 김 가공용 정수시설 보조사업 실무 전담을 맡았고, 시설 납품 수의계약을 통해 자신과 공모한 특정 정수시설 설치·납품·보수 회사 소속 업자들이 보조금을 탈 수 있게 도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8월 사이 정수시설을 김 공장에 납품한 해당 회사 업자들에게 보조금 지급을 대가로 5차례에 걸쳐 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회사가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는데도 이를 묵인하고 계약을 체결해줬다. A씨는 보조금을 사실상 뇌물로 돌려받았고, 공모한 다른 회사들과도 설비 단가를 조작해 보조금을 부풀린 정황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A씨가 직무 관련 뇌물을 수수한 점, 수법·액수를 고려하면 죄질이 나쁜 점, 행정의 공공성을 해치고 신뢰를 떨어뜨린 점,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완도=기동취재본부